

◇개심술후 발생한 중격동염에 대한 고찰

김성철, 박계현, 전대국, 박표원, 채 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개심술후 발생하는 중격동염의 발생빈도는 0.3% ~ 3%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율은 최고 50%까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중격동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술후관리 등은 환자의 사망율과 이병율의 감소를 위해 중요하다. 이에 본원에서 개심술후 발생한 중격동염 환자들의 임상경과를 분석하여 진단 및 치료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방법 : 1994년 10월 부터 1998년 7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심장수술후 중격동염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술전위험인자, 진단과정 및 치료방법과 결과를 조사하였다.

결과 : 개심술후 중격동염의 발생빈도는 16/1632 [1.0%] 였고 질환별로는 관상동맥 우회수술후 10명[2.6%], 판막수술후 3명[1.1%], 선천성 기형 수술후 3명[0.4%] 등의 분포를 보였다. 고령[70세 이상], 당뇨, 심한 좌심실 기능부전[EF <35%], 장시간의 심폐바이패스[180분 이상] 등이 각각 3명, 5명, 2명, 7명 에서 발견되었다. 수술후 중격동염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14일[5~39일] 이었으며 증상으로는 흉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8명, 50%] 기타 발열[7명, 43.8%], 절개창 분비물[5명, 31.3%], 발적[4명, 25%] 등이 있었다. 평균 혈중 백혈구수, 적혈구침강속도[ESR], C-반응단백[CRP]는 각각 12540, 55, 10였으나 정상수치를 보인 환자도 각각 7, 4, 1례 였다. 원인균이 동정된 14명에서 모두 methici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가 검출되었다. 수술적 치료로서는 대망치환술 4례, 대흉근치환술 7례, 폐쇄세척 2례, 개방세척후 지연성 흉골 봉합은 3례에서 사용되었다. 사용 항생제는 Vancomycin을 전례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용기간은 평균 24일[6~52일]이었다. 술후 사망은 없었으며 재발성 감염이 2례에서 발생하였으나 이중 한명은 대흉근 치환술로 치료되었고 또 다른 한명은 지속적인 국소감염으로 아직 치료중이다.

결론 : 개심술후 발생하는 중격동염은 특히 관상동맥 우회수술후 발생빈도가 높고 대다수에서 원인균이 MRSA로 나타났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학적 검사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기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와 항생제 투여를 병행할 경우 양호한 치유 성적을 거둘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책임저자: 박계현 (삼성서울병원) 발표자: 김성철 (삼성서울병원)